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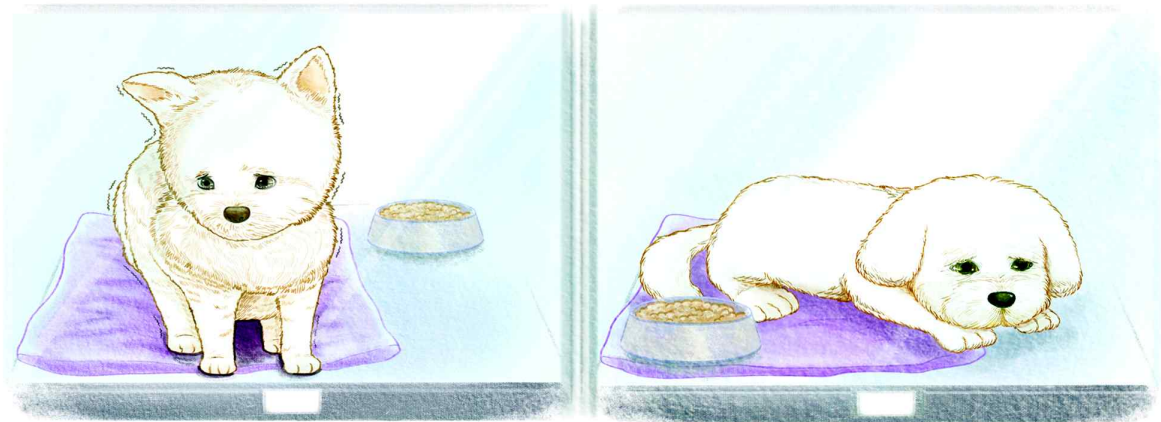
## 내 동생 초코

글 길지연, 김은숙 그림 정슬기

오늘은 수미 생일입니다.

“엄마, 난 선물로 강아지 받고 싶어요.”

“가게에서 강아지 사주세요”



“강아지 동생 꼭 데리고 오고 싶어?”

“네! 정말,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럼 엄마랑 약속 하나 할까?”

“네, 약속할게요.”

“수미야,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를 사왔다 사정이 생기면 팔아도 될  
까?”

엄마의 말에 수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 돼요! 내 동생인데 왜 팔아요?”

“그렇지? 강아지를 팔면 안 되는 것처럼 가게에서 돈 주고 사오면 안 되는 거야.”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물건처럼 사고팔면 안 되겠지?”

“그럼, 어디서 동생을 데리고 와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올 수 있어”

‘보호소’라는 말에 수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가 뭐예요?”

“가족이 없는 강아지들이 임시로 사는 곳이야”

“강아지들이 귀찮아 지고 사정이 생기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강아지들이 불쌍해요. 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가족을 만나지 못한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요?”

“죽게 된단다.”

“아 불쌍해라, 친구들도 보호소 강아지를 동생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이 죽지 않아서 좋고 친구들도 동생이 생겨서 좋겠구나.”

다음 날, 수미는 엄마랑 함께 유기견 보호소로 갔습니다.

큰 개, 작은 개, 아기 고양이, 햄스터까지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미는 동물들이 불쌍했지만 크고 털이 더러운 개들이 무서웠습니다.

“수미야, 여기 있는 개들은 열흘이 지나도 가족이 안 찾아가면 다 죽는단다.”

“날마다 새 강아지들이 오기 때문에 보호소에서는 딱 열흘만 살 수 있어.”

엄마의 말에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흘 뒤에 죽어요?”

그 순간 철장 안에서 두 눈을 꿈벅 꿈벅하며 수미를 바라보는 갈색 털의 개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개는 수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금세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듯 했습니다.



“엄마! 저 갈색 털을 가진 개가 좋아요.”

수미가 개에게 다가가자 개가 펄쩍펄쩍 뛰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미의 동생이 되는 것을 벌써 아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개는 날름날름 수미의 얼굴을 핥으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나 동생 이름을 초코라고 지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렇구나, 털이 초콜릿 색깔이네.”

엄마도 좋아했습니다.

엄마랑 수미는 초코를 데리고 동물병원부터 갔습니다.



“음, 다행이 곰팡이도 없고 귀도 깨끗하구나. 앞으로 산책시키려면 기생충약 먹이고 진드기 약도 발라줘야 한다.”

원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초코 이름표는 꼭 달아야 한다.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면 가족을 찾아줄 수 있단다.”

“처음이라서 소변을 못 가린다고 야단치면 안 되지. 아기처럼 자꾸 설명해주면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거야.”



수미는 두 귀를 바짝 세우고 원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사료도 추천해주시고 밥그릇, 물그릇, 초코 장난감도 싸게 주셨습니다.

“수미가 큰 일을 했구나”

“첫째, 강아지 가게에서 강아지를 사지 않은 것, 강아지 가게는 없어 져야 한단다.”

“둘째, 초코의 생명을 구해 준 것, 수미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목욕을 마친 초코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와! 정말 초코가 맞아요? 이렇게 잘 생겼는데 아까는 지저분해서 덜 이뻐 보였나 봐요.”

활짝 벌어진 수미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초코도 수미누나랑 잘 지내 거라.”

“초코가 아프면 꼭 병원에 데리고 와야 한다.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산책은 하루 한 번이 좋다. 약속할 수 있지? 혼자 너무 오래두면 무서워서 큰 소리로 짖을 수도 있단다.”

“넛! 명심하겠습니다.”

수미는 원장님이 채워 준 초코 목줄을 잡고 씩씩 앞으로 달리며 외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이니 응가도 잘 치우고 매일 잘 놀아줄게요.”

초코는 마치 오래 전부터 수미의 가족인 듯 수미와 함께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래 우리 수미는 초코를 잘 돌볼거야, 새 가족이 생겼으니 나도 바빠지겠네” 하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